

2019년 5월 31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국제유가 4% 급락 불구 상승 성공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 유입된 점이 상승 요인

### 국제유가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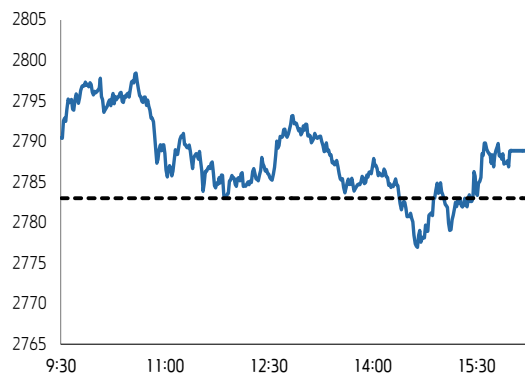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상승 폭 축소. 더불어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하자 에너지 업종 위주로 매물 출회된 점도 부담. 다만, 연준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 성공(다우 +0.17%, 나스닥 +0.27%, S&P500 +0.21%, 러셀 2000 -0.30%)

미 증시는 국제유가가 4% 급락하자 에너지 업종이 하락 주도. 유가는 EIA 의 원유재고 보고서 발표 및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보도 등으로 급락. 미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예상치(100만 배럴 감소) 보다 적은 28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한편, 정유시설 가동률이 개선(89.9%→91.2%) 되며 드라이빙 시즌(6~8월)을 앞두고 가솔린 생산에 박차를 가한 모습.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수요 부진 가능성이 제기. 특히 일부 투자은행들이 타이트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

이런 가운데 미 주요 언론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주문을 중단했다고 보도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 한편, 미 농무부는 대두 수출 물량이 122억 달러에서 74% 감소한 31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 이에 대해 트럼프는 160억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했으나, 대두 가격은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었음. 결국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농민들의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임. 이로 인해 향후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

다만, 사우디가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아랍권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كن 여전히 높음. 여기에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공급감소, OPEC 정례회의에서 감산합의 연장 기대감, 미국 드라이빙 시즌 등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하락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38.80	+0.77	홍콩항셱	27,114.88	-0.44
KOSDAQ	689.33	-0.31	영국	7,218.16	+0.46
DOW	25,169.88	+0.17	독일	11,902.08	+0.54
NASDAQ	7,567.72	+0.27	프랑스	5,248.91	+0.51
S&P 500	2,788.86	+0.21	스페인	9,157.80	+0.85
상하이종합	2,905.81	-0.31	그리스	818.33	+3.19
일본	20,942.53	-0.29	이탈리아	19,947.92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에너지 업종 하락

저가 소비용품 판매점인 달러 제네럴(+7.16%)은 달러 트리(+3.14%)와 더불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생명과학 업계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인 비바시스템즈(+14.73%)도 견고한 실적과 향후 전망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했다. 테스트 및 측정장비 소프트웨어 회사인 키사이트(+11.30%)(구 애질런트)도 견고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한 이후 급등 했다. 비아컴(+5.53%)은 CBS(+3.17%)과 합병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했다.

반면, 의류회사인 PVH(-14.87%)는 미-중 무역분쟁을 이유로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통신회사인 버라이즌(-2.32%)은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코노코필립스(-1.98%), EOG 리소스(-2.86%) 등 세일오일업체와 솔룸베르거(-2.76%), 할리버튼(-3.65%), 발레로에너지(-2.66%) 등 원유, 천연가스 서비스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했다. BOA(-2.13%)는 주택 담보부 증권(RMBS) 판매관련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하락했다. JP모건(-1.07%) 등 여타 금융주도 금리차 축소와 소송관련 이슈까지 유입되자 동반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57%	대형 가치주 ETF(IVE)	+0.01%
에너지섹터 ETF(OIH)	-1.90%	중형 가치주 ETF(IWS)	-0.02%
소매업체 ETF(XRT)	+0.22%	소형 가치주 ETF(IWN)	-0.61%
금융섹터 ETF(XLF)	-0.34%	대형 성장주 ETF(VUG)	+0.50%
기술섹터 ETF(XLK)	+0.62%	중형 성장주 ETF(IWP)	+0.7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8%	소형 성장주 ETF(IWO)	+0.12%
인터넷업체 ETF(FDN)	+0.95%	배당주 ETF(DVY)	-0.12%
리츠업체 ETF(XLRE)	+0.6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9%
주택건설업체 ETF(XHB)	+0.7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7%
바이오섹터 ETF(IBB)	+0.04%	미국 국채 ETF(IEF)	+0.36%
헬스케어 ETF(XLV)	+0.55%	하이일드 ETF(JNK)	+0.19%
곡물 ETF(DBA)	+1.33%	물가연동채 ETF(TIP)	+0.33%
반도체 ETF(SMH)	+0.77%	Long/short ETF(BTAL)	+0.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9.19	-1.18%	-5.77%	-8.26%
소재	333.44	+0.12%	-1.89%	-5.60%
산업재	613.78	+0.39%	-2.55%	-6.01%
경기소비재	891.34	+0.51%	-2.06%	-5.31%
필수소비재	578.06	+0.33%	-2.62%	-1.47%
헬스케어	1,014.93	+0.52%	-2.08%	-1.49%
금융	437.11	-0.45%	-2.37%	-5.18%
IT	1,279.09	+0.60%	-2.00%	-7.18%
커뮤니케이션	160.81	-0.02%	-2.21%	-3.34%
유틸리티	292.65	-0.14%	-2.47%	-0.66%
부동산	223.35	+0.65%	-0.96%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지속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2%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71 계약)에 힘입어 0.25pt 상승한 264.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8.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미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과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며 장중 하락하기도 했으나,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 했다. 특히 그동안 하락을 이어갔던 반도체 업종이 이를 연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74% 상승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물론,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경향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지난 5 월초처럼 충격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점차 상수화 되어가는등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3.1%

1 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1% 증가로 확정 되었다. 지난 수정치(3.2%) 보다는 하향 조정 되었으나, 전망치(3.0%)에 비해서는 견고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5 만건으로 지난 주(21.2 만건) 보다는 증가했으나 예상치에는 부합되었다. 4 주 평균 수치는 지난주(22 만 500 건)보다 감소한 21 만 6,750 건이었다.

4 월 미국 잠정 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전월(mom +3.9%) 발표치나 예상치(mom +0.50%)를 하회한 수치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하는 주간 에너지 재고보고서에서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적은 28 만 배럴 감소에 그치자 매물이 출회되었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진 전도 부담이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엔화와 더불어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이슈가 여전히 부담을 주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진 데 이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성장 전망이 악화되면 금리인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하락 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2 분기 미국 경제는 긍정적이며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낮기는 다양한 조치로 목표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금리는 장기 중립 수준의 추정치 범위에 있다” 라며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 했다. 다만 성장 전망이 악화되면 금리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장 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며 소폭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4%, 철근도 0.6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59	-3.77	-7.86	Dollar Index	98.156	+0.01	+0.31
브렌트유	66.87	-3.71	-1.31	EUR/USD	1.1132	+0.01	-0.44
금	1,292.40	+0.47	+1.01	USD/JPY	109.6	+0.01	-0.01
은	14.491	+0.56	+0.29	GBP/USD	1.2613	-0.10	-0.35
알루미늄	1,782.00	-0.72	+0.17	USD/CHF	1.0076	-0.03	+0.43
전기동	5,852.00	-0.53	-1.28	AUD/USD	0.6912	-0.07	+0.16
아연	2,561.00	+0.79	+0.75	USD/CAD	1.3503	-0.12	+0.22
옥수수	436.25	+4.18	+10.58	USD/BRL	3.978	+0.09	-1.53
밀	514.50	+4.89	+8.83	USD/CNH	6.9302	-0.04	+0.05
대두	889.00	+1.95	+7.30	USD/KRW	1188.80	-0.43	-0.03
커피	102.35	+2.86	+11.55	USD/KRW NDF1M	1188.52	-0.37	+0.0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215	-4.55	-10.35	스페인	0.759	+2.90	-9.00
한국	1.741	+0.60	-5.90	포르투갈	0.859	+1.30	-15.00
일본	-0.079	+1.10	-2.00	그리스	3.042	-7.80	-37.50
독일	-0.175	+0.40	-5.50	이탈리아	2.654	+1.50	+1.80